

# ACC, 공연·전시 등 지역예술인 할당제 추진한다

### 개관 10주년 '융복합 협의체' 발족 지역작가 특별전·서울예술단 이전 유휴공간 개방·공유 등 현안 논의

올해 개관 10주년을 맞은 국립아시아문화전당(전당장 직무대리 김상욱, ACC)이 지역문화예술 활성화 및 소통에 적극 나기로 해 귀추가 주목된다.

ACC는 이를 위해 '장제작 공연·전시 지역예술인 할당제', 서울예술단 이전 등을 주요 현안으로 논의하기로 했다. 이 같은 방침은 개관 10주년을 계기로 지역문화예술 생태계를 조성해 지역사회 성원과 기대에 부응한다는 복안과 연계돼 있다.

ACC는 3일 오후 국제회의실에서 '지역문화예술 융복합 협의체(협의체)'를 발족하고 'ACC-지역협력 회의'를 열었다. 협의체에는 전시를 비롯해 공연, 문학, 철학, 연극, 미디어아트, 언론인 등 각계 전문가 22명이 참석했다.

이날 첫 회의에서는 '장제작 공연·전시 지역예술인 할당제'를 비롯해 지역작가 특별전, ACC 유휴공간 개방 및 공유에 대한 현안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다. 또한 대형 지역 축제 행사 협력 등도 주요 현안으로 다뤄졌다.

특히 '장제작 공연·전시 지역예술인 할당제'는 ACC가 추진하는 공연과 전시를 비롯해 레지던시, 교육 등에 일정 비율 지역 예술인이 참여하도록 보장하는 방안이다. 이를 매개로 지역예술인들의 타지역



ACC는 지난해 대나무정원을 개방해 지역대학의 졸업전시를 지원했다.

〈ACC 제공〉

예술인들과의 교류를 촉진한다는 계획이다.

지역 신진·청년 문화예술인의 콘텐츠 창작자 예산과 공간을 지원하는 지역작가 특별전도 있다. 'ACC-지역협력 회의'를 토대로 역량 있는 작가를 지원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서울예술단의 ACC 이전(광주일보 3월 6일자 1면)은 최근 발표된 문제부의 '문화비전 2035 프로젝트'에 따라 추진될 예정이다. 아시아를 모티브로 지역 창작 콘텐츠를 세계로 유통할 계기가 된다는 점에서 기대를 모은다. 다만 수도권 예술단체 등을 중심으로 광주 이전을 반대하는 목소리도 있어 실제 이전까지는 일부 진통이 우려된다는 전망도 나온다. 협의

체에서는 이 문제로 논의할 계획이다.

ACC 유휴공간을 활용한 콘텐츠 제작, 공간 개방 등도 심도있게 논의된다. 아울러 지역 축제를 세계적인 축제로 견인하기 위해 축제 담당 기관과 협력하는 방안 등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의견을 교환한다.

김상욱 직무대리는 "ACC가 지역의 관심과 성원에 힘입어 10년의 시간을 순환할 수 있었다"며 "이제는 지역문화예술 생태계 조성과 활성화를 위해 지역과 열린 자세로 소통할 계획이다"고 전했다.

한편 협력체(지역협력 TF) 명단은 다음과 같다. 강혜경 민형배의원실 특별보좌관, 권경은 건축가, 김기문 광주연구원 부원장, 김서라 문학평론 편집위원, 김서연(주)서연어패럴 대표, 김안나 아바렌드 대표, 김허경 전남대 호남학연구원 연구교수, 김현호 안도걸 의원실 보좌관, 김형진 화가, 류도향 전남대 철학과 교수, 류재한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지원포럼 회장, 박수인 광주MBC 국장, 박진현 광주일보 문화·예향담당 국장, 신선민(사)내컷소리민족예술단 단장, 오윤환 대한무용협회 광주지회 회장, 원광연 광주시립극단 예술감독, 이경호 광주미디어아트플랫폼 센터장, 이상훈 광주영화영상인연대 이사장, 임용현 미디어아트 작가, 임홍석 광주수교장협회 회장, 최중일 조선대 경제학과 교수, 한희원 화가.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바다문화학교의 지난 수강생들이 바다와 관련된 문화인문학 강좌를 듣고 있다. 〈국가유산청 제공〉

## 해안가 유적에서 만끽하는 치유의 시간

### 국립해양유산연구소 '바다문화학교'… 22일부터 3차레

전남 지역 해안가 유적에서 치유의 시간을 만끽할 수 있는 인문학 강좌가 열린다. 바다가 주는 다양한 힐링을 즐길 수 있는 시간이 된다.

국립유산청 국립해양유산연구소는 오는 22일부터 5월 13일까지 매주 화요일 오후 2시 3차레에 걸쳐 '제3기 바다문화학교'를 운영한다.

오는 17일까지 신청 가능하다. 참가비 무료. 선착순 60명.

이번 바다학교의 주제는 '탈라소테라피(Thalassotherapy): 바다가 주는 치유'다. 탈라소테라피는 그리스어 'Thalassa(바다)'와 'Therapy(치료)'의 합성어로, '바다 자원을 활용한 치유'를 의미한다.

우선 첫 강좌는 22일 목포시 산정동 김대중노벨평화상 기념관 다목적강당에서 열린다. 홍장원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연구위원과 함께

'바다가 주는 쉼, 해양치유'를 주제로, 바다의 치유의 힘을 과학·심리·역사적 관점에서 깊이 있게 탐구할 수 있다.

29일에는 목포시 용해동 목포해양유물전시관 기획전시실에서 바다의 파도 소리를 매개로 내면의 안정을 찾는 요가·명상 시간을 갖는다.

수강생들은 완도선과 신안선 등 다양한 해양유물이 전시된 전시관에서 특별한 경험을 할 수 있을 예정이다.

마지막 시간은 '완도에서 치유해(海) 답사 프로그램. 수강생들은 장도 청해진 장보고 유적과 장보고 기념관, 약산 해안 치유의 숲 등을 둘러보며 휴식을 즐긴다.

한편 국립해양유산연구소는 지난 1995년부터 해양 문화 인문학 강좌 '바다문화학교'를 운영하고 있다.

/장혜원 기자 hey1@kwangju.co.kr



ACC는 3일 '지역문화예술 융복합 협의체'를 발족하고 지역문화예술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ACC 제공〉



'Delight-봄날'

## 환희를 향한 시간과 기억의 미학

정송규 개인전, 4일~5월 25일

점(點)은 미미하다. 한 개의 점은 그다지 큰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한다. 그러나 문장의 말미에 반드시 따라붙는 점은 완결의 의미를 갖는다. 점이 찍히지 않고는 문장 중단 여부를 정확하게 알 수 없다.

상징적 의미의 점은 끝이자 시작이며, 유한에서 무한으로 확장된다. 하나 하나의 점은 다양한 의미의 스펙트럼으로 연계된다.

점을 모티브로 작품을 구현한 전시가 열려 눈길을 끈다.

무등현대미술관은 정송규 작가의 'Delight-환희를 향한 시간과 기억의 미학'전을 연다. 4일부터 5월 25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전시는 점과 점이 모여 이룬 응축의 의미에 초점을 맞췄다. (오픈식은 오는 10일 오후 4시30분이며 자유토론 '광주미술발전에 대하여'가 예정돼 있다.)

이번 전시는 2000년대 이후부터 작업한 100여 점

에 이르는 'Delight' 시리즈 일환으로 기획됐으며, 29점이 관객을 맞는다.

'만남'은 아름다운 작품이다. 무수히 많은 색점이 모여 이룬 세상은 조화롭고 평화롭기 그지없다. 무한히 펼쳐진 우주 속에 내던져진 두 개체(해와 달 또는 다른 존재)가 서로를 그리워하며 바라보고 있는 모습은 보는 이에게 아련함과 애절함을 느끼게 한다. 달을 듯 말 듯 일정한 거리를 둔 두 존재는 어쩌면 우리 삶의 한 단면을 보여주는 듯하다.

'봄날'은 어디론가 떠나고픈 마음을 부채질한다. 아득히 펼쳐진 밀밭 길기도 하고, 노을이 지는 들판의 풍경을 환상적으로 묘사한 것 같기도 하다. 바라보고 있으면 내면의 어떤 근심이나 불안 등 부정적인 생각들은 저만치 밀려난다.

그렇게 정송규 작가의 점은 살아서 움직인다. 개개의 점들이 모여 이룬 세상은 곧 '기쁨', '환희'로 수렴



'Delight-만남'

된다.

한편 바우리 학에서는 "천란한 인생의 모음인 점들은 모두 자리를 지키며 그것이 하나로 집약되었을 때 비로소 무한으로 확장된 새로운 의미의 환희를 구현해내는 것"이라고 전했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 '윤 파면' 선결제로 전하는 작가들 마음

### 이진 광주전남소설가협회장, 작가회의 릴레이농성에 선결제

작업실을 나와 윤석열 파면을 촉구하고 있는 작가들을 향한 따스한 손길이 이어지고 있어 눈길을 끈다.

광주전남소설가협회에 따르면 3일 이진 회장이 천막농성에 참여한 문학인들을 위해 커피 50잔을 선결제했다.

광주전남작가회의(회장 김미숙)는 지난 31일부터 나흘째 광주 5·18민주광장(옛 전남도청 광장)에 마련된 농성장에서 릴레이 농성을 진행하고 있다.

광주전남소설가협회 회원 10여명 역시 릴레이 농성에 참여하고 있는 만큼 이 회장이 5·18민주광장 인근 한 카페에 커피 선결제를 한 것이다.

이에 앞서 지난 2월 15일 금남로에서 윤 대통령 탄핵 찬성, 반대가 동시에 열렸을 당시에도 채희운, 이미란 작가가 탄핵 찬성 집회에 참여한 문학인들을 위해 커피 총 40잔을 선결제하기도 했다.

여러 사정으로 집회에 참석하지 못하는 작가들이 커피 선결제를 통해 마음을



이진 광주전남소설가협회장

전하고 있는 것이다.

이진 회장은 "춘래불사춘(春來不似春)이라 했다. 봄이 왔지만 봄을 느끼지 못하는 잔인한 4월이다. 드디어 내일이면 탄핵 선고일인 만큼 그동안의 고통이 끝나고 진정으로 꽃피는 4월이 오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말했다.

/장혜원 기자 hey1@kwangju.co.kr



**KSA 한국표준협회**  
KOREAN STANDARDS ASSOCIATION

**ISO 21388**  
보청기적합관리 인증센터

# “고객에게는 신뢰와 만족”



## 국제보청기

since 1982

- ✓ 필요한 소리만 똑똑히 들립니다.
- ✓ 작은 사이즈로 착용시 거부감이 없습니다.
- ✓ 정직한 우수상품 가격부담이 없습니다.

본점	서석동 남동성당 옆	062) 227-9940
서울점	종로 5가역 1층	062) 227-9970
서울점	종로 5가역 1층	02) 765-9940
순천점	중앙시장 앞	061) 752-9940